

주춤하던 관광객 발길 다시 제주로

새해 첫날 2만9000명 입도후 최근 4만명대 진입
설 명절 앞뒤 숙박·렌터카 시장 예약 상승 기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주춤하던 제주 관광객들의 발길이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첫날부터 지난 10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35만9000여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기간(9만8000여명)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일별로 살펴보면 1일 2만9000여명, 2일 3만2000여명, 3일 3만4000여명, 4일 3만3000여명, 5일 3만4000여명, 6일 3만7000여명, 7일 3만7000여명,

8일 3만8000여명, 9일 3만9000여명, 10일 4만여명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최근 눈이 내린 한라산 설경을 구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는 등 설명절을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침체기에 빠졌던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설 특수를 앞두고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 직후 주춤하던 도내 렌터카 가동률은 현재 80%대까지 상승한 상태다.

또 도내 한 특급호텔 객실 예약률은 50~6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설 연휴기간에는 70~80%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설 연휴 기간인 1월 마지막주와 2월 첫번째 주에는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편의 품귀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종합포털사이트에서 설 연휴 기간 항공편을 검색한 결과 오는 28일부터 31일 오전까지 김포발 제주행 국내선 항공편 예약은

대부분 마감됐는데, 현재 남아 있는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 가격은 평균 10만원대로 평상시보다 높은 금액으로 형성돼 있다. 또 31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 제주발 김포행 항공 예약률은 80~90%를 기록하고 있는 등 항공편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관광객 발길이 주춤했는데 최근 다시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며 “설 연휴 기간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눈 내린 날, 5·16도로 통제 산간에 눈이 내린 11일 5·16도로 초입인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경찰들이 차량통제를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내일까지 눈 날씨 강풍으로 체감기온 ‘뚝’

한파가 몰아닥친 제주에 13일까지 눈이 내리겠다.

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고도 약 5km 상공에 있는 영하 30℃ 이하의 매우 찬 공기로 인해 만들어진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13일까지 눈이 내리겠다. 해안은 12일 아침까지, 산지는 같은날 밤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어 13일 새벽부터 오후 3시 사이에도 산지는 눈, 해안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5~15cm(많은 곳 20cm 이상), 중산간 2~7cm, 해안 1~3cm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0~2℃, 낮 최고기온은 5~8℃로 예상됐으며, 13일은 아침 최저기온 3~5℃, 낮 최고기온은 5~8℃로 11일과 비슷한 것으로 예측됐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던 바람은 12일 오전부터 잦아들겠지만, 13일에는 다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 날씨로 인해 13일까지 산간 도로에는 결빙으로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인구 67만 제주섬 차 40만대 ‘쌍쌍’

지난해 기준 역외세입차 25만여대 제외한 40만2703대 운행

제주에서 실제 운행되는 자동차 수가 처음으로 40만대를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공개한 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주에 등록된 차량은 65만8594대로 전년(61만5342대)보다 4만3252대 늘었다.

제주도 등록 차량 중 자가용이

39만6333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용(25만9835대), 관용(2426대) 순이다.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55만5377대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제주에 등록했지만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이른바 ‘역외 세입차량’은 25만5891대로 집계됐다.

이들 역외 세입 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도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40만2703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40만대를 넘어섰다. 전년에는 39만4649대가 실제 도내에서 운행됐었다.

한편 제주도는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1.3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민기자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제동’ 제주지법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무효 판결

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토지구 편법 증원’ 논란에 휩싸이며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안동우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파트 인근 비주택단지(아파트 주변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촉발됐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진입로 확장·추가를 위해 해당 비주택단지 토지·건물주들과 협의, 지적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지난해 8월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진입로 3곳과 교차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비주택단지 토지구 중 한 명인 A씨가 자신의 땅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재판부는 당초 3명(A씨·B씨·C

씨)이던 토지·건물주가 7명으로 늘어난 것이 ‘편법’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7월 B씨가 가족 4명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비주택단지 토지가 7명으로 늘었는데,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제외한 B씨와 그의 가족 4명, C씨 등 6명이 정비구역 포함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시 비주택단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비주택단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를 편법으로 증가시켰다”며 “실제 비주택단지 토지 소유주는 3명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A씨가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율은 3분의 2(6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행정직 충원 상담교사 행정업무 경감”

도교육청 건강증진추진단 해명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이 지난 10일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제기한 ‘추진단 내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훼손’ 주장과 관련 11일 설명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추진단은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상담, 수업을 포함한 교육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기관”이라면서 “때문에 수학, 국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대신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학생을 위한 행정적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담교사들도 행정기관에 배치된 이상 관련한 행정업무는 당연하며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담교사들이 행정업무

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상담 지원 등도 했음을 밝혔다. 이어 “다만 행정 업무로 인한 고충을 이해하였기에 올해 전문직과 교육행정직원을 충원에 상담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켰다”고 덧붙였다. 오은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수훈 금탑산업훈장  강태선 (비와이엔블랙야크 회장) (본 공익사단법인 지도위원)	수상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사회봉사부문)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본 공익사단법인 명예 회장)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고문화 (제민신탁 이사장) (본 공익사단법인 부회장)	등재 제주시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이금자 (구좌읍장애인지원협의회)	수상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부영자 (용담1동장애인지원협의회 직전회장)
---	---	--	--	--

수훈 및 수상, 등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익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회장 고관용 외 회원 일동